

<p style="text-align: center;">제 목</p>	<p style="text-align: center;">“서후야 고마워!” ※ 작품 속 아이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습니다.</p>
<p>2023년7월3일 월요일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범한 날 조금 빠른 점심을 막 시작하려는 때에 보조교사 선생님이 숨을몰아치듯 급하게 원장실로 와서는 “원장님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서후가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내 울먹이기까지 했다. 평소에도 좀 표현이 과한 선생님이어서 “왜? 또~” 하자 다급하게 “서후가 숨을 안 쉬어요” 순간 정말 순식간에 고무줄이 튕겨 나가듯이 교실로 뛰어갔다. 교실에선 벌써 담임선생님이 “서후야, 서후야” 를 연발하시며 아이를 뒤로안고 하임리히법을 처치하고 계셨다. “원장님 애가 메추리알 먹다 걸린거 같아요.” 말을 듣는 순간 아찔했지만 놀랄 새도 없었다. 일단 “119신고부터 해요, 부모님께도 연락드리고” 아이는 늘어져 있었다. 내가 입안을 살펴보려니 아이는 이를 앙 물고 눈이 흰자가 보이고 얼굴빛이 청색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기도확보를 하기위해 뒤로 젖혔지만 아이는 앙다문 입을 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19와 통화가 연결되었고 스피커폰을 통해 119구급대원이 지시하는대로 하임리히법을 처치하면서 가슴압박도 같이 번갈아가며 하기를 반복하다 아래턱을 눌러 입을 벌리는 순간 “가르릉” 하는 소리와함께 아이의 얼굴이 붉은빛으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그때도 구급대원과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고 이렇다 무슨 일 일어나는 건 아닌지 별별 떨었지만 그건 그냥 맘일 뿐 119구급대원의 지시대로 손을 바꾸어 하임리히법과 심폐소생술을 반복했다. 이내 119구조대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착했다. 구조대원은 아이의 상태를 살펴면서 아이를 안고 차안으로 이동 해 인공호흡기로 산소를 주면서 병원으로 이동했다.</p> <p>병원도착이후 아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말을 듣기까지 정말이지 저승을 경험한 듯 했다. 간호사가 사건의 경위에대해 물었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메추리알을 먹다 걸린 것 같다. 하임리히법을 해도 나온 것 같지는 않다. 황설수설하자 간호사가 진정하라고 하고는 다시 오겠다고 하고는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경찰차를 타고 따라온 담임선생님도 하얗게 질려서는 응급실 안쪽 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렇게 잠시 지났을까?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다는 말에 우리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었다. 아이와 눈을 맞추고 나서야 조금 안심이 되었다. “휴~~” 하는 한숨과 “살았다~.” 이말이 저절로 나왔다. 뒤늦게 도착하신 아이의 아빠도 놀랐을 선생님들을 걱정해 주시며 고맙다고 하셨었다. 이유야 어찌 됐든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사고인데 화를 내시기보다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했고 그 덕에 그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것</p>	

같다. 시간이 훌쩍 지나 지금 교실에서 신나게 놀고 있는 아이를 볼때마다. 그때의 일이 떠오른다.

지나고 보면 진짜 몇분이안 되는 시간이다. 우리는 매해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는다 고는 받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부닥치니 정신이 아득했다. 돌이켜 보면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임리히법으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

살아는 있을까?

오만가지 생각이 든다. 진흥원에서 받은 교육은 제대로 애니를 들고 실습해 볼 수 있었고, 12개월이 지나면 아이라도 등 뒤에서 다리로 중심을 잡고 팔로 안고주먹을 쥐고 엄지가 복부쪽으로 닿게 하면서 이인 일조로 실습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그전처럼 누워있는 인형에 그저 가슴을 압박해 보는 흉부 압박 심폐소생술만 교육받았다거나, 한 명이 대표로 나와서 해보고 설명을 듣는 그런 교육을 받았다면 결코 그날의 그런 응급처치는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후 우리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꼭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교육을 이수한다.

일어나지 않으면 너무도 좋겠지만 세상일은 알 수가 없고 특히 영아들의 병증은 우리가 방심할 때 나타나기가 쉽다. 우리는 방심하지 않기 위해 오전에 두 번 오후에 두 번 체온 체크를 생활화한다. 대개의 경우 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병의 시작일때가 많다. 그날도 오전에 한번 점심 먹기 전 한번만 더 열 체크를 했더라면 어찌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후회가 남는다. 이번일을 겪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방이 최선이란 생각이다. 그래서 열이 나면 바로 가정에 보고하고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체계화 하여 생활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비온뒤 질척이던 땅이 마르며 더 굳어지는 것처럼 힘든 일들을 겪으며 더 단단해 지고 있는 중이다. 생각해보면 그날 하루는 감사할 일이 너무도 많다. 그 바로 처치한 선생님, 보고체계를 잘 지켜준 선생님, 지시를 잘 따라준 선생님, 골든타임을 놓치지않은 119구급대원, 차분하게 대처해주신 부모님, 최선을 다해주신 의료진, 교육 주체자인 안전공제회 그리고 거스르고 거슬러 올라 1920년 그 오래전에 하임리히 구급법을 개발한 헨리 하임리히씨께도 감사함을 표한다. 모두의 덕분으로 오늘을 살아간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 시간을 잘 버텨준 서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

“서후야 고마워!”